

## 청소년 절도행동의 이해 :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이 동 훈 김 세 진† 조 미 영 이 진 현 방 소 희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절도범죄가 청소년 범죄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청소년 범죄에 비해 재범율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인 차원에서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절실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절도행동에 관한 국내·외 연구물에 대한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절도행동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 절도행동에 대한 상담개입 방안을 모색하고 청소년 절도 개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61년부터 2010년까지 절도를 주제로 진행된 국·내외 학술 논문과 단행본을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63편이 문헌연구에서 사용되었으며 국내 학술지와 논문 32편과 국외 학술지 논문 31편이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청소년의 낮은 자존감, 남성성, 도덕성, 욕구통제력 부족과 같은 심리적 원인들이 청소년의 절도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도 모험심, 우울 등의 요인도 관련이 있었다. 병리적인 도벽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충동성, 감각추구성향, 정신장애, 신경학적 손상 등이 관련되었다. 또한 청소년의 절도행동은 가정과 또래를 비롯하여 학교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이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개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절도행동, 도벽, 청소년, 문헌연구

\* 이 논문은 2010년도 부산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김세진,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609-735)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번지, Tel: 051-804-5001, E-mail: soitis@hanmail.net

최근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그 심각성이 커져 가면서 이에 적합한 청소년 선도정책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19세 이하 청소년 5대 범죄 현황에 따르면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등 강력 범죄가 2008년 3만8천366건에서 2009년 4만6천335건으로 20.8% 증가했다(연합뉴스, 2010). 청소년 범죄 중 특히 절도범죄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다른 청소년 범죄에 비해 높은 재범율을 보이며, 절도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연령이 저연령화 되어 가고, 절도를 저지르는 범행 방법이 폭력과 결합되어 흉포화 되어 가고 있는 점에서 청소년의 절도범죄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현재 청소년의 범죄유형 중 재산범죄(49.8%)가 강력범죄(폭력; 42.7%)와 더불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산범죄 중 절도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법무연수원, 2009). 재산죄는 재산적 법익에 대한 범죄 행위를 총칭하여 일컫는 말로(형법 제 38장-42장), 절도·강도죄, 사기·공갈죄, 횡령·배임죄, 장물에 관한 죄, 손괴죄 및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강요죄 및 중강요죄를 포함한다. 2008년 소년 재산범 39,688명 중 절도가 33,073명으로 전체의 83.3%를 차지하였다(법무연수원, 2009). 그중 14-15세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절도범죄를 일으키는 청소년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2009년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의뢰된 소년 범죄자 11,251명 중 폭력범이 2,314명(20.6%), 절도범이 4,788명(42.6%)으로 절도범죄로 구속된 청소년이 폭력범죄에 비해 거의 2배를 차지하였다(경찰청, 2009). 이러한 통계는 절도죄로 법적 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되는 수치이므로 발각되지 않는 절도 청소년의 수까지 고려한다면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김해운, 2010).

최근에 청소년 절도범죄는 집단화 되어 가는 것이 특징인데 절도범죄가 단독으로 행해진 비율은 22.9%로 청소년 범죄자의 77.1%가 단독범보다 공동범의 형태가 많으며, 이러한 집단화 경향성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

2009; 박현중, 2009). 개인으로는 불가능한 행동이 집단행동에 의지하게 될 때 도덕관념과 판단력이 둔화되고 자제력을 상실하게 되며 범죄행위에 무책임해진다. 결국 범죄 행동에 만용이 생겨 절도범죄 행위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고운미 외, 2002). 청소년 절도범죄의 또 다른 특징은 최근에 절도범죄가 폭행, 상해, 협박, 공갈 등의 폭력행동과 결합되어 나타나며, 성인범죄를 모방한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로 확대되고 가고 있다는 점이다(연합뉴스, 2010; 이동원, 2003).

청소년 절도범죄와 관련해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다른 청소년 범죄에 비해 높은 재범율이다. 최초로 절도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다시 절도범죄를 반복하는 경향은 폭력범죄자보다는 재산범죄자에게서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수정, 조은경, 2005). 청소년 절도사범이 최근 5년 동안 전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약 40%를 차지하며, 특히 2007년 한 해 동안 절도 재범을 일으킨 총 8,540명의 절도 사범 중 약 92.1%(7,782명)가 2년 이내 절도범죄를 반복하거나(63.1%, 5,328명) 절도와 결합된 다른 형태의 범죄를 일으킨 것으로(29.0%, 2,454명) 보고되었다(대검찰청, 2008).

청소년의 절도범죄가 재범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사회적 분위기, 가족해체, 청소년 문화, 청소년 사법정책 등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분을 내리는 것이 청소년 절도범죄의 재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김영한, 서정아, 2003). 처음으로 절도범죄를 일으켰을 때 경찰에 의해 훈방 조치되는 청소년들이 사법기관에서 법적처분을 받는 청소년들보다 이후에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김영한, 서정아, 2003). 절도범죄 청소년을 일차적으로 접하는 경찰이 절도범죄 청소년들에게 재비행 방지교육 없이 훈방조치 하거나 보호자에게 인계함으로써, 범죄 청소년이 자신의 문제행동에 대한 자각이 결여될 수 있다. 이러한 선도 방법은 범죄 청소년들에게 사법체계가 예상보다 엄격하지 않고 형식적이라는 잘못된 사고를 심어주어

절도범죄의 재발로 이어지게 된다(이수정, 조은경, 2005).

그러나 이와 반대로 청소년 절도범죄자가 사법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아 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면, 낙인효과로 인한 사회적 입지의 추락이 재범으로 연결되어, 결국 성인이 되어서 누범 범죄자가 된다는 주장도 있다(이병학, 2009). 이처럼 청소년 범죄자 중에서 전과자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청소년기의 비행이나 범죄가 어린 시절의 한 차례 실수나 통과의로 끝나지 않고 지속되어 성인 범죄자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법기관의 신중한 사법처리가 필요하다(이동원, 2003).

경찰과 사법기관에서는 절도범죄 청소년에 대한 대책으로 이들을 훈방조치하거나 사법절차에 따라 처벌을 하기 보다는 처벌 단계에서 바로 법적 처벌을 내리지 않고 지역의 청소년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이들을 선도하고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역 청소년상담기관에서 이러한 절도 청소년에 대한 개입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청소년의 절도행동은 청소년 비행의 하위분류로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절도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이해 및 상담개입 방법에 대한 정보가 청소년상담자들에게 거의 전무한 편이다. 현재 지역의 청소년상담기관에서는 절도범죄를 일으킨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존의 폭력예방 프로그램이나 비행청소년이나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사용해오고 있지만 절도행동이라는 청소년의 문제 행동을 고려하지 못하고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 절도 문제행동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과 재범방지를 위한 예방적 개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소년 비행과 반사회적 행동에 관한 연구들은 일관되게 청소년기 문제행동이 성인기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강력한 지표라고 보고하고 있다. Farrington과 West(1990)의 연구는 10-16세에 유죄선고를 받은 영국 청소년의 73%가 17-24세에 다시 유죄선고를 받았다고 보고한다. 다른 연구들 또한 청소년의 반사회적,

비행 행동은 시간이 갈수록 지속된다는 사실을 보고한다(Loeber, 1991, 1996; Michelson, 1987). 외국 연구의 경우 절도죄로 체포당한 전력이 있는 비행 청소년의 경우 상당수가 성인 범죄자로 발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Farrington, 1996; Michelson, 1987).

절도범죄가 청소년 범죄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청소년 범죄에 비해 재범율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인 차원에서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절실하다. 또한 매해 증가하는 절도 청소년에 대한 효과적 개입을 통해 국가적 손실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절도 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개입 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이러한 절도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과 재범방지를 위한 예방적 개입을 위해 청소년상담기관의 역할이 커져가고 있는 만큼 전문적 상담개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절도에 관한 주제로 진행된 국내·외 연구를 바탕으로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절도행동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 절도 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하고 향후 청소년 절도 행동에 대한 개입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방 법

본 연구를 위하여 국회도서관, 한국학술정보서비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전국대학학위논문, Google, wikipedia에서 “절도”, “재산 비행”, “도박”, “kleptomania”, “stealing”, “shoplifting”, “theft”, “burglary” 라는 주제어를 검색하여 나온 자료 중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연구를 수집하였다. 검색항목은 전체, 논문명(Full Title), 저자(Author), 주제어(Keyword), 초록(Abstract)이었으며, 1961년부터 자료 수집일인 2010년까지 국내·외에 등재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처음에는 130건의 연구물이 검색되었고, 이들의 제목과 초록을 참고로 하여 DB간 중복된 연구물을 삭제하고, 동일 DB 내에서의 간행물 형태별로 중복된 연

구를 삭제하였으며, 연도나 주제 또는 연구 대상을 확인할 수 없는 연구물을 삭제한 결과 총 63개의 연구물로 범위가 좁혀졌다.

국내의 경우 학술지와 논문이 32편이 수집되었다. 11편의 단행본, 학술지 논문 17편 중 양적연구는 11편, 질적연구 6편이고, 학위논문 4편 중 양적연구 1편, 질적연구 3편이 수집되었다. 국외의 경우 학술지 논문 31편이 수집되었다. 학위논문 1편, 학술지 논문 30편 중 양적연구는 20편, 질적 연구는 10편이 수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절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총 63편의 학술지 및 단행본을 바탕으로 절도 행동의 이해와 원인, 개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 결 과

절도와 관련한 국내·외 연구를 살펴본 결과 청소년의 절도행동과 관련된 연구는 교육학, 심리학, 정신의학, 아동학, 청소년학, 가족학, 범죄학, 약학, 사회복지학, 마케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절도행동에 대한 이해, 절도행동의 원인, 청소년의 절도행동에 대한 개입방안 순으로 정리하였다.

### 절도행동의 이해

절도행동은 법률적인 용어로 재산비행으로 불리기도 한다. 청소년의 재산죄 성립 과정은 소년법에 의한 비행 청소년의 법적 처리 절차와 동일하다. 경찰에 의해 단속 및 적발이 된 소년은 소년법원에서 법적 처리를 받게 된다. 판사의 심리 진행을 통해 불처분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거나 보호처분 결정을 받는다. 보호처분의 결정(소년법 제32조)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1호 처분), 수강명령(2호 처분), 사회봉사명령(3호 처분),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4호 처분),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5호 처분),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 시설에 감호

위탁(6호 처분),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소년 의료보호시설에 위탁(7호 처분),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8호 처분), 단기 소년원 송치(9호 처분), 장기 소년원 송치(10호 처분)로 나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절도는 비행의 하위분류로 포함하여 연구되어져 왔다. 이러한 현상은 절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이를 설명하고 있는 관점에 따라 절도의 정의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Schulman(2004)은 절도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7가지로 정의한다. 첫째, 직업적인 도둑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이 있다. 둘째, 약물중독 혹은 도박중독자들로서 약물이나 도박의 자금조달을 하고자 한다. 셋째, 생계를 위한 물건을 절도하는 부류로서 절도를 생계수단이라 정당화시킨다. 넷째,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을 지닌다. 다섯째, 인지적인 장애가 있는 유형으로 정신지체나 노인 등이 있다. 여섯째, 병리적 도벽 증세를 보인다. 일곱째, 중독적 강박장애 증세를 보인다. 이처럼 절도행동에 대한 이해는 여러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절도행동과 관련하여서도 합의되지 않은 다양한 용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먼저 kleptomania는 병리적 관점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국내에서는 도벽이나 절도행위 중독으로 불린다(이수정, 2005). shoplifting은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등에서 발생하는 절도행위를 일컫는 말로 상점절도라는 용어로 해석하고 있다(노정구, 김상조, 2002). 그 외에도 절도행동을 shoplift, theft, stealing, burglary 등의 용어로 국외에서는 지칭하기도 한다. stealing은 theft와 동의어로 간주한다. burglary는 범죄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로 강도로 번역된다.

청소년이 절도를 일으키는 과정을 설명하는 독립적인 이론은 현재 있지 않다. 이는 청소년의 절도가 청소년 비행행동의 일부분으로 이해되어져 왔기 때문이다. 청소년 비행 이론에 비추어 청소년의 절도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절도행동은 학습과정을 통해 일어난다. 사회

학습이론에 의하면 청소년은 자신이 속해 있는 환경에서 모델링을 할 주변인물을 탐색하고 선정하여 모델링 대상을 통해 절도행동을 학습한다(McPhail, 2008; Reid, Patterson, & Snyder, 2002). 그러나 청소년이 절도를 유발하는 대상을 접했다고 해서 모두가 절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의식, 태도 그리고 절도 장면의 노출이 상호작용하여 절도가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한다. 차별접촉이론에서는 절도를 저지르는 청소년은 절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친구들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친구들과 더 잦은 접촉을 갖는다고 본다. 이러한 또래와의 접촉을 통해 절도와 관련된 다양한 행동들을 학습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청소년은 절도를 저지르는 기술과 합리화하는 태도를 학습하게 된다고 본다(김준호 외, 2006; 오남주, 2008).

둘째, 절도행동은 아동기에 상실된 욕구에 대한 대체물을 추구하는 행동이다. 대상관계이론에서는 절도가 관계적 행동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생애초에 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패턴에 의해 욕구가 좌절되었을 경우, 청소년 시기에 어린 시절의 좌절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절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02). 애착이론에 의하면 절도를 저지르는 자녀는 부모와 불안정한 애착관계에 있으며, 이러한 관계가 자녀에게 역기능적 행동 및 품행문제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고 본다(White, 2006). 즉, 청소년이 부모-자녀 관계에서 친밀한 정서적 유대와 같은 애착이 부족할 경우, 절도를 일으키게 된다고 할 수 있다(임은희, 남현주, 2008).

셋째, 사회적 압력 또는 집단에 의한 영향으로 절도행동이 일어난다. 아노미 이론에서는 절도행동이 사회가 요구하는 성공(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위해서 비합법적 수단(절도)까지 동원하여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데에서 기인한다고 본다(김준호 외, 2006; 오남주, 2008). 또한 비행하위문화이론에서는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들 사이에 중산층 문화에 대항하기 위해 절도를 유발하는 비행문화가 형성되어 절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김해운, 2010).

마지막으로 개인적 선택의지에 따라 절도를 저지르게 된다고 보는 이론으로 합리적 선택이론을 들 수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청소년은 절도를 저지를 때 자신에게 어떤 이득과 손실이 있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산을 한 후에 절도를 한다고 본다. 손익 계산 과정을 통해 예비 절도 청소년들은 절도가 자신에게 처벌이나 손실보다 이득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절도에 대한 의지를 가지게 되거나 실제 절도를 저지르게 된다고 설명한다(오남주, 2008).

### 절도행동의 원인

청소년기 이전, 아동기의 훔치기는 비교적 흔히 나타나는 행동이다(Sanders & Markie-Dadds, 1992). 최선남(1995)은 아동이 물건을 훔치는 이유로 자신의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것인 줄은 알지만 그런 행동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경우, 친구관계에서 일어나는 경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인정받지 못한 경우의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시험 삼아 훔치기는 대부분의 아동들에게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행동으로 간주되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행동은 점차 사라지게 된다(Loeber, Keenan, & Zhang, 1997; Miller & Zimprich, 2006).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12세 미만 아동의 훔치기 행동을 절도행동에 포함하기를 주저한다(Miller & Moncher, 1988). 그러나 연구와 공식 기록에 따르면, 많은 12세 미만 아동이 훔치는 행동을 하며 단발성 훔치기 행동이 지속적인 문제행동으로 발전하는 아이들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cPhail, 2008).

청소년은 유아기, 아동기의 단순한 생활에서 성인의 복잡한 생활로 이행되어 가는 신체적, 정신적, 생리적 성장을 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화와 특징을 갖는 인격형성과정의 과도기적 시기이므로 자신의 역할, 존재가치에 대한 의문과 회의에 빠져들게 된다. 이러한 정서적 불안정과 갈등상태에서 전통적인 권위나 도덕, 질서 등에 반항하는 행동을 하고 또는 또래 집단, 동료집단과 어울리면서 자제력을 잃고 절도와

같은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임영기, 2001).

연구들은 청소년의 절도 행동이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행동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일탈에 대한 태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11세부터 높아지기 시작하고, 14세에 절정에 달한다고 한다(Zhang, Loeber, & Stouthamer-Loeber, 1997). 또한 14세 청소년들이 여타 연령층에 비해 절도행동과 같은 ‘비윤리적 행위’를 가장 잘 받아들인다고 한다(Keltikangas-Jarvinen, & Lindeman, 1997). 14세~16세에 있는 청소년들의 자기-보고 자료에 의하면 절도행위에 참여한 횟수가 17세~19세에 있는 청소년의 자기-보고한 횟수보다 약간 많았다(Regnerus, 2002).

고등학생과 성인집단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이 대학생이나 성인보다 상점절도라는 일탈행동이 크게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Babin & Griffin, 1995). 이러한 결과는 상점절도가 고등학생 때 정점에 달하고(Cox, Cox, & Moschiset, 1990), 상점절도를 하다 잡힌 이들의 약 40%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난 보고서(Baumer & Rosenbaum, 1984)와 일치한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절도 행동은 유아기나 아동기부터 시작될 수 있지만 청소년기에 그 횟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그리고 좀 더 성숙한 청소년과 어린 청소년의 절도행위 메커니즘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선행연구들은 제시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절도에 관한 연구들을 고찰하면서 발달적 관점도 견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내·외 문헌 고찰을 토대로 청소년 절도행동의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심리적 관점

남성성(masculinity)에 의해 청소년 절도행동을 설명하는 연구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여성에 비해 훨씬 많은 범죄를 저지르며 남자청소년도 여자청소년에 비해 더 많은 비행을 저지른다. 미국의 범죄 보고서에 의하면 2000년에 절도로 체포된 청소년 중 70%가 남자청소년이었다(U. S. Department of

Justice, 2001). 범죄학자들은 성정체성, 특히 남성성이 남성의 범죄나 남자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Connell, 1995; Messerschmidt, 1993, 2000). 남자 청소년들은 합법적으로 학업 성취나 직업적 성공 등을 통해 남성성을 표출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의 남성다움을 보여 주기 위해 범죄나 비행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김경호(2008)는 질적 연구를 통해 남자청소년의 절도 원인을 경제적 능력의 과시, 모험심과 용기의 과시, 지적 능력의 과시로 보았다. 남자청소년은 소비와 유희를 위해 절도를 하고, 이를 통해 주변 친구들에게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과시하면서 남성다움을 표출한다는 것이다. Regnerus(2002)는 청소년기의 절도와 일탈행동에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중간연령(14세~16세)까지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지만 성숙한 청소년들(17세~19세)의 경우, 남성이 된다는 기대효과가 절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청소년의 절도행위와 도덕성도 관련이 있었다. Judy(2000)의 연구에서는 절도행위에 관여한 적이 있다고 밝힌 청소년의 경우, 과거 그런 경험이 없다고 밝힌 청소년보다 도덕성 점수가 상당히 낮았다. Barry와 Laurie(1996)는 고등학생과 성인집단에게 상점절도에 관한 시나리오를 읽게 한 후 절도행동에 대해 얼마나 호의적인지를 평가했다. 또 응답자에게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인물처럼 행동할 가능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상점절도 행동을 도덕적으로 공정하거나 사회문화적으로 허용 가능한 것으로 여기는 응답자 일수록, 자신의 행위가 또래에게 힘이 있거나 대담하게 보인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일수록 절도행동에 대한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상점절도를 하는 이들의 대부분이 스틸을 맛보려고 훔치는 것이며 “유희” 동기가 절도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주장도 있다(Barry & Laurie, 1996). Klemke(1982)는 절도 청소년들이 상점절도의 이유로 “잡히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는지 보려고(29%)”, “재미와 흥분(13%)”이라고

답한 것을 제시하면서 인지적이거나 도덕적인 동기보다는 정서적 동기와 절도행동이 관련될 수 있음을 보고했다. 이성식(2000)도 청소년이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는 행위가 물건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훔치는 것이 재미와 스릴을 주어서 장난삼아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는 범죄 상황에서 느끼는 재미와 스릴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강도, 절도, 폭행과 관련된 범죄 상황 시나리오를 각각 제시하고 그 상황에서 재미와 스릴을 얼마나 느끼게 될 것 같은가와 같은 방식으로 질문을 하였는데, 절도행동에 관한 스릴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롭고 강렬한 감각적 자극을 추구하는 개인특징을 감각추구성향 또는 자극추구성향이라고 하는데 Arnett(1996)는 새롭고 강렬한 감각적 자극을 추구하는 개인의 감각추구성향이 절도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청소년기에 한번쯤 슬쩍하는 것은 괜찮다. 친구가 슬쩍하는 것이 나빠 보이지 않는다’ 등의 투사식 질문을 통해 상점절도에 대한 태도와 자극추구성향의 관련성을 알아본 연구(노정구, 김상조, 2002)에서는 상점절도 태도에 대한 청소년의 자극추구성향이 클수록 상점절도행동에 더 큰 호의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청소년들은 모험심보다는 변화나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심리를 상점절도라는 형태로 표출하고 있었다. 즉 청소년들의 상점절도 행동은 미성숙된 자아에 의한 범죄행위라기보다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이나 변화를 추구하려는 일반적인 심리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성청소년의 절도행동과 성격적 특성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도 있었다. Carrasco, Barker, Temblay와 Vitaro(1996)는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13세부터 17세까지 종단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지속적인(절도행동을 계속해서 보이거나 절도행동 횟수가 늘어나는) 절도행동을 보이는 남학생들이 절도행동의 횟수가 적거나 절도행동이 점차 감소하는 남학생들에 비해, Eysenck의 성격지표에서 충동성, 모험성, 불안 등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절도행위의 원인을 욕구통제 능력부족, 우

울증, 자존감의 측면에서 다룬 연구들도 있었다. 김선희(2001)는 재산범죄와 폭력범죄, 지위비행(예, 음주, 흡연, 무단결석 등) 등 모든 유형의 비행행동과 범죄에 대해 자기통제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다른 연구(김지은, 1998; 박성수, 1991; 전병재, 1991)도 자기통제력이 약한 청소년은 충동적이며 문제행동 성향을 가진 친구들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거절을 잘하지 못한다고 했다. 또한 인지사회적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좌절이나 실패를 보상받으려 하고 친구들의 권유에 따라 문제행동 씨클에 가입해서 소속감을 가지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언급했다. 박은주(2004)는 발달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우울증을 겪는 청소년들은 이를 회피할 수단을 찾게 된다고 했다. 우울에 대한 방어기제로 지나치게 바쁜 일을 한다든지 지속적으로 새롭고 흥미로운 활동을 찾고자 하며 이런 이유로 절도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Hamid(2007)가 일반인 집단과 약물 남용, 절도, 성매매 전과가 있는 집단의 자존감을 서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자존감과 약물 남용, 절도, 성매매는 관련이 있었다. 즉, 절도를 하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에 비해 자존감이 낮다는 것이다. Babin과 Griffin(1995)도 청소년의 낮은 자존감이 상점절도의 부분적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심리적 원인들이 절도를 하는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여러 요인들이 절도를 하는 청소년들만이 가지는 심리적 특성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몇 가지 요인들은 요인들 간의 상관으로 인하여 청소년 절도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졌을 수도 있다.

### 병리적 관점

일반적으로 병리적 관점에서의 도벽(kleptomania)은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IV에 의해 품행장애의 일부로 포함되거나 강박충동장애로 진단된다. 도벽은 훔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성적 판단력이 상실되

표 1. 심리적 관점을 다룬 문헌

연구자 (연구년도)	국내/외	학위논문/학술지/저서	주제	대상	연구방법	관련요소
김경호 (2008)	국내	청소년복지연구	남자 비행청소년의 절도와 남성성에 관한 연구	청소년	문헌고찰	심리적 원인
노정구 등 (2002)	국내	마케팅관리연구	자아정체감 및 자극추구성향이 청소년 상점절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문헌연구	심리적 원인
박은주 (2004)	국내	상담과 교회교육	우울증과 도벽	남자 청소년	사례	심리적 원인
Arnett (1996)	국외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감각추구성향과 폭력성, 그리고 청소년의 위험행동	청소년	양적연구	심리적 원인
Barry 등 (1996)	국외	Psychology & Marketing	도덕적 인지와 소비자 정서가 상점절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대학생, 성인	양적연구	심리적 원인
Carrasco 외 (1996)	국외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남자 청소년들의 신체적 폭력과 절도, 공공기물파손행위의 경로에 대한 지표로서의 Eysenck의 성격연구	청소년	양적연구	심리적 원인
Hamid (2007)	국외	Journal of Chinese Clinical Medicine	자존감이 약물 남용, 절도, 성매매에 미치는 영향	수감수, 일반인	양적연구	심리적 원인

는 상황에서 발생된다고 보는 것이다(APA, 1994). 도벽의 유병율은 100명 중 5명 정도로 보고되며 도벽은 청소년부터 시작되어 점차 만성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권석만, 2010).

이수정(2005)은 DSM-IV 진단기준에 근거하여 도벽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자신에게 필요가 없으며, 금전적 가치가 없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훔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지 못하는 상태가 반복된다. 둘째, 물건을 훔치는 행동으로 들어가기 전에 생리적 및 심리적 긴장감이 고조된다. 셋째, 물건을 훔치는 행동을 하는 동안에 만족감, 쾌감 그리고 긴장완화가 존재한다. 넷째, 물건을 훔치는 행동은 분노나 양갈음의 표현이 아니고, 망상 또는 환청에 의한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물건을 훔치는 행동은 명백한 품행장애 또는 조증, 반사회적 인격장애에 의한 것이 아

니라고 본다.

도벽 연구를 살펴보면, 국내보다 국외에서 도벽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으며 충동성, 감각추구성향, 정신장애, 신경학적 손상 등에 의해서 도벽행동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합의된 도벽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도벽이 정신병리적 요인에서 생리학적 요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원인들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충동성이 도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다. Grant와 Kim(2002a)은 충동성과 공격성이 도벽행동을 하게 하는 동기로서 작용한다고 보고, 충동조절에 효과가 있는 날트렉손(naltrexone)을 도벽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에게 투여한 결과 효과를 보았다. Grant(2003)은 도벽 환자들이 충동조절장애에 포함되는 도벽 이외에도 경계선 인격장



애와 물질사용장애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고한다. 특히 도벽과 다른 충동조절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는 도벽환자의 가족을 살펴보면 가족 중에 알코올 중독 등의 충동조절장애를 보이는 구성원이 있었다고 보고한다. 이를 통해 도벽환자의 도벽 행동과 충동조절장애는 가족력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도벽행동과 ADHD의 연관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도벽환자의 15%가 ADHD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하는 연구도 있다(Grant, 2006; Silvio, Donatella, Liliana, Chiara, Stefano & Giovanni, 2002).

다음으로 도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감각 추구성향을 들 수 있다. 도벽 환자는 충동조절장애를 가진 알코올 의존 및 알코올 중독 환자와 유사한 수준의 감각추구점수를 보였다(Baylé Caci, Olié, & Richa, 2003). 이것은 도벽 환자들이 알코올 의존 및 알코올 중독 환자와 같이 새로운 경험, 스릴과 모험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도벽환자들은 기분장애 그리고 성격장애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Grant와 Kim (2002b)의 연구에서는 도벽환자가 충동조절장애의 범주에 속하는 강박장애뿐만 아니라 기분장애까지 두 가지 장애를 모두 보였다. 도벽환자가 강박장애에 비해 기분장애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는데 이 연구결과는 일반적으로 도벽이 충동조절장애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간과할 수 있는 기분장애와의 관련성을 강조하고 있다. Grant(2004)는 도벽을 보이는 사람과 성격장애와의 관련성을 제기했다. 도벽만 있는 도벽환자보다, 도벽과 성격장애를 함께 가진 사람이 더 많은 도벽행동을 저지르게 된다고 보았다. 이는 도벽환자가 도벽행동의 원인으로 성격장애가 고려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이수정(2005)은 도벽을 보이는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충동성을 느끼며 동시에 생리적 변화를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뇌의 특정부분의 손상이나 신경학적 기능 이상으로 인해 도벽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이다(권석만, 2010). Aizer, Dannon와 Lowengrub(2004)의 연구를 보면 전두엽과 왼쪽 측두엽의 손상이 충동조절장애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여 도벽행동을 일으킨다고 보았

다. 또한 Yüksel, Taskin, Ovali, Karacam과 Dana(2007)은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무산소증이 왼쪽 측두엽의 기능 이상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충동조절장애와 도벽행동을 일으키게 된다고 보고 하였다. 이때 손상된 왼쪽 측두엽 자체가 도벽을 일으키게 되는 직접적 원인은 아니고 뇌손상으로 인해 충동성에 영향을 받게 되면, 왼쪽 측두엽이 충동성의 증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도벽행동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도벽은 강박장애보다 충동조절장애의 범주에 포함하여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도벽은 하나의 원인에 의해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신장애 증상들과 동시에 발병된다고 보았다(Grant, 2003; Silvio et al., 2002). 즉, 도벽이 충동성 등과 같은 정신병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벽 이외의 다른 정신병리적 질환과 상호작용하여 도벽행동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도벽은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고 다른 여러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등장하면서 나타나는 결과로 본다.

### 사회적 관점

청소년 절도는 가정과 또래 및 학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결손 가정의 구조적 문제는 절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임영기, 2001). 구조적 문제가 있는 가정의 부모는 자녀의 절도에 대한 관여, 감독, 행동 관리 등에 소홀해지기 때문이다(McPhail, 2008). 또래 요인은 청소년이 개인적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비행 친구의 개입은 절도와 큰 관련이 있다(김해운, 2010). 또한 청소년이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은 절도뿐만 아니라 다른 비행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을 감소시켜 줄 수 있다.

#### (1) 또래의 영향

또래 영향은 아동·청소년의 비행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래에게 거절당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만성적으로 반사회적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Coie & Miller-Johnson, 2001). 평범한 또래에

표 2. 병리적 관점을 다룬 문헌

연구자 (연구년도)	국내/ 외	학위논문/학술지/저서	주제	대상	연구방법	관련요소
Aizer 등 (2004)	국외	Clin Neuropharmacol	두부 손상 후의 도벽 : 2가지 사례를 통한 종합치료전략	34세, 43세 남성	사례연구	병리적 관점
Baylè 등 (2003)	국외	Am J Psychiatry	정신 병리학과 도벽 환자의 정신 장애의 동시이환	도벽환자, 알코올장애환자, 정신이상환자	질적연구	병리적 관점
Grant 등 (2003)	국외	Comprehensive Psychiatry	도벽환자의 가족력과 정신이상의 동시이환	도벽환자	질적연구	병리적 관점
Grant 등 (2004)	국외	J Am Acad Psychiatry Law	도벽환자의 정신장애 공존 발병 : 예비 조사	성격장애를 보이는 도벽환자	질적연구	병리적 관점
Grant 등 (2006)	국외	Isr J Psychiatry Relat Sci	병적도벽의 이해와 새로운 치료모델		문헌연구	병리적 관점
Grant 등 (2002b)	국외	Comprehensive Psychiatry	22명의 도벽환자의 병리적 특징과 정신병리와의 관계	도벽환자	질적연구	병리적 관점
Grant 등 (2002a)	국외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naltrexone을 통한 청소년 도벽 치료	13세 여성	사례연구	병리적 관점
Silvio 등 (2002)	국외	Comprehensive Psychiatry	도벽 : 이탈리아인의 사례를 통한 의학적 특징과 동시이환	도벽환자	질적연구	병리적 관점
Yüksel 등 (2007)	국외	Turkish Journal of Psychiatry	사례보고 : 일산화중독 이후 도벽과 다른 정신병리적 증상	41세 여성	사례연구	병리적 관점

게 거절당한 아이들은 자기와 비슷한 아이들을 찾고 그런 아이들에게 끌린다. 이는 일탈적 또래 집단을 형성하는 토대가 된다. 이 또래 집단은 은밀하고 공공연한 비행행동을 훈련할 수 있는 장소가 되고, 이런 또래 집단에 받아들여지면 아이들은 또래의 승인을 얻기 위해 더욱 더 절도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Elliot, Huizinga & Ageton, 1985; Elliot & Menard, 1996; Krohn, Massey & Skinner, 1987). 지속적인 반사회적 행동성향은 또래와 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입증되었지만(Moffitt, 1993), 이러한 문제를 보이는 청소년들도 또래나 친구들이 비행행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Frank와 Gloria(1999)는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절도행동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절도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남자청소년들의 경우, 외부 또는 상황적 강화가 절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소 또래가 도와주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절도를 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과 실제 상습적인 절도행동 횟수와 관련이 있었다. 또한 다른 반사회적 행동에 비해 또래가 절도행동에 쉽게 동조하며 절도행동의 특성상 발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절도행동은 시간이 갈수록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남자청소년들은 또래의 지지와 수용을 받는 수단이 되는 경우, 절도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Judy(2000)의 연구에서는 또래집단의 영향이 부모의 보살핌이나 과보호보다 절도행동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Cox, Cox 그리고 Moshis(1993)도 청소년의 상점 절도 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또래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Regnerus(2002)는 연령에 따라 친구의 영향력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였고 높은 연령(17세~19세)의 청소년이 또래의 영향을 더 받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절도와 같은 일탈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절도행동의 횟수가 가장 많은 연령이 중간연령(14세~16세)으로 나타난 이유는 높은 연령(17세~19세)의 청소년들은 나이가 들면서 자율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으로 예상하였다.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청소년의 절도행동에 또래 영향이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청소년 집단 내에서도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그 영향력과 메커니즘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별과 연령에 따른 또래영향력과 절도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2) 부모의 영향

국외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절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적 요인 중에서도 특히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잘못된 양육방식은 부적절한 자녀 감독, 불확실한 규칙, 가혹하고 일관성 없는 훈육을 포함한다. 이 요인들은 반사회적 행동, 특히 절도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Johnson, Smailes, Cohen, Kasen, & Brook, 2004). 부모의 방임과 무관심은 청소년의 은밀한 일탈 행동 및 절도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Gorman-Smith & Tolan, 1998; Patterson, 1982a; Warr, 199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흠치는 아동의 부모는 자녀 관리에 있어 정상 아동이나 공격적인 아동의 부모보다 초연하고, 의욕적이지 않으며, 통찰력이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Patterson, 1986; Reid &

Patterson, 1976). 둘째, 자녀에 대한 감독 및 감시가 적을수록 아동의 행동문제는 증가한다(McCord, 1982; Sanders, Turner & Markie-Dadds, 1996). 흠치는 아동의 부모는 대체로 자녀를 감시/감독하고, 자녀의 행동에 반응하는데 일관성이 없다(Miller & Moncher, 1988). 셋째, 일관성 없는 양육방식은 대개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과 인과관계가 있다(McCord, 2001; Patterson, DeBaryshe & Ramsey, 1989). 흠치는 아동의 부모는 아이의 나쁜 행실에 대해 벌을 줄 때 그렇지 않은 아동의 부모 보다 상당히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Miller & Klungness, 1989; Reid & Hendriks, 1973).

또한 매우 강압적인 가정의 자녀들도 절도와 같은 반사회적 행동을 보일 위험이 있다(Farrington & Loeber, 2000; Krohn, Thornberry, Rivera & LeBlanc, 2001). McPhail(2008)은 부모들이 자녀의 행동을 적절히 감독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익히고 부모-자녀 관계를 개선하고 적절한 강화물과 처벌을 주면 흠치기 행동이 줄어들거나 없어진다고 하였다.

특정한 상황에서 또래가 물건을 훔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응답하도록 하여 청소년 본인의 절도행위 가능성을 조사한 연구(Frank & Gloria, 1999)가 있었다. 절도행위 가능성을 외부/상황에 의한 강화와 가족처벌/윤리의 2개의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외부/상황적 강화는 경제적 필요성, 동료의 압력, 발각되지 않을 가능성 등의 문항으로, 가족처벌/윤리는 절도행위를 억제하는 개인적, 가족윤리 또는 태도를 반영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예를 들면, ‘만일 부모님이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된다면, 절도를 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연구에서 여자청소년들은 가족의 처벌/윤리에 의해 절도행동을 하지 않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자청소년들은 가족 처벌/윤리가 또래의 절도행동의 영향을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여자청소년들은 행위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할 수 있으며 부모가 일탈행동을 저지할 수 있다는 이론과도 일치하는 것이다(Keltikangas-Jarvinen & Lindeman, 1997).

Warr(1993)는 부모가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일탈 행동의 가능성은 낮아지고, 부모와 자녀의 유대 관계가 깊을수록 일탈행동을 하는 동료들과 어울리게 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보고한다. 또한 여자 청소년들은 아버지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태도는 학교에 대한 태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가정에서 긴장이 높아지는데, 이것이 여자청소년들에게는 절도행동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홍은주(2007)는 청소년 절도행동의 원인으로 개인의 소유욕을 들었는데 이는 억제력이 약한 청소년에게서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부모로부터 과잉보호를 받는 청소년은 타인의 것을 훔쳐도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부모가 대신하여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경험을 갖게 되면서 자기통제능력을 충분히 갖지 못하게 된다. 반대로 빈곤가정에서 충동적으로 도벽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양육과정에서 애정결핍이 있거나 비일관적인 양육태도로 인하여 욕구좌절이나 분노가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벽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부모의 정신건강도 아이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며, 많은 위험을 증가시킨다. 우울한 엄마를 둔 아이들은 행동장애 위험이 있다(Downey & Coyne, 1990). 우울한 엄마들은 강압적 양육방식을 사용하고 훈육에 일관성이 없으며 자녀를 거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절도와 같은品行문제에 일조할 수 있다(Downey & Coyne, 1990; Susman, Trickett, Ianotti, Hollenbeck, & Zahn-Waxler, 1985). 우울증과 양육행동에 관해 메타분석을 한 Lovejoy, Graczyk, O'hare 그리고 Neuman(2000)의 연구는 우울증이 부정적인 모성행동과 높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우울증을 가진 엄마는 아이에게 화를 잘 내고 적대적으로 행동하며 이것은 자녀의 적대감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수준을 낮게 만든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우울증을 포함하여 심리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부모, 특히 엄마의 정신건

강이 자녀의 절도행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 준다.

김동연, 이영호, 임지향(1994)은 동적 가족화를 통해 대구소년감별소에 입소한 203명의 재산비행과 강력비행(강도, 폭력 등)을 저지른 남자 청소년들의 부모-자녀 관계를 알아보았다. 재산비행을 저지른 남자 청소년(111명)이 강력비행 남자청소년에 비해 가족에 대한 묘사와 표현이 경직되어 있었다. 재산범은 강력범에 비해 자신의 부모가 더 활동적이며, 자신과의 관계보다 부모 사이가 더 가까웠으며, 비양육적인 부모로 지각하고 있었다. 또한 동적가족화에서 재산범은 강력범보다 어머니에 대해 거부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와의 의사소통, 정서적 교류 등의 가족기능은 공통적으로 청소년의 절도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확인한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여자청소년의 절도행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으며, 절도행동을 하는 남자청소년은 어머니와의 관계를 소원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 (3) 학교에 대한 태도

학교는 청소년들에게는 가정생활 못지 않게 중요한 활동의 장으로 가정을 떠나 처음 대하는 사회적 의미의 집단이다. Frank와 Gloria(1999)의 연구에서는 연령 및 성별에 관계없이 자기-보고된 청소년의 절도행동과 학교에 대한 태도 간에 관계가 있었다. 즉 학교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절도행동의 횟수가 많았다. 학교에 대한 태도 요인으로는 학업성적, 교사에 대한 감정,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태도, 결석 횟수 등이었는데 특히 남자청소년들의 경우 학교에 대한 심한 반감이 절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압력이론(strain theory; 아노미 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압력이론은 청소년기의 반사회적 행동이 사회의 기대(학업, 성적)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과 관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학교에 대

한 태도가 사춘기 이전이나 사춘기 중반의 청소년의 절도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관습적인 목표와 기대에 대한 부적응이 사춘기 초반에 시작되는 일탈 행위와 관계가 있으며, 이는 14 세에 절정에 달한다는 압력이론(아노미이론)을 뒷받침한다(Frank & Gloria, 1999).

Gorman-Smith 그리고 Tolan(1998) 등이 사춘기 이전과 사춘기 초기를 종단연구한 결과, 가족갈등이 은밀한 일탈 행위와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부모에 대한 반항 등의 요인이 학교에 대한 태도와 학교적응 행동에 영향을 주어서 절도행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Loeber(1990)는 절도는 계속 할수록, 상습적이고 보다 심각한 반사회적 행동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학업성적과 과제 수행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결론적으로 학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은 절도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고, 절도행동을 저지르게 됨으로써 학업성적과 학교적응력이 떨어지게 된다.

어지게 된다. 결국 학교에서 환영받지 못한 청소년은 다시 학교 밖에서 절도를 저지르고 더 많은 비행행동을 할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볼 수 있다.

### 절도 청소년에 대한 개입방안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 본 결과, 절도행동의 원인을 밝히는 연구는 있었으나 개입방안의 내용은 부족하였다. 문헌고찰을 통해 살펴 본 개입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낮은 자존감, 남성성, 도덕성, 욕구 통제력 부족과 같은 심리적 원인들이 청소년의 절도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도 모험심, 우울 등의 요인도 관련이 있다는 보고들이 있었다. 특히 남성성과 감각추구성향, 모험심 등은 환경에 적응적인 환경을 조성해 준다면 적응적 행동이나 긍정적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요인들이다. 감각 추구성향의 경우, 청소년기에 그 성향이 크게 나타나

표 3. 사회적 관점을 다룬 문헌

연구자 (연구년도)	국내/ 외	학위논문/학술지/저서	주제	대상	연구방법	관련요소
김동연 외 (1994)	국 내	Journal of Art Therapy	동적가족화를 통한 비행청소년의 가족지각 이해	소년감별소 입소 청소년	질적연구	사회적 원인
Frank 등 (1999)	국 외	Adolescence	일반청소년의 절도행동과 또래 영향, 부모와 학교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청소년	양적연구	사회적 원인
Johnson 등 (2004)	국 외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부모의 양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부모/ 아동·청소년	양적연구 (종단)	사회적 원인
Judy(2000)	국 외	The high School journal	부모에 대한 애착, 도덕성, 또래집단과 절도와의 관계	남녀 고등학생	양적연구	사회적 원인
Lovejoy 등 (2000)	국 외	Clinical psychology review	부모의 우울증과 양육행동	부모	양적연구 (메타분석)	사회적 원인
Regnerus (2002)	국 외	Social Ascience research	청소년의 절도와 일탈행동에 대한 또래영향	청소년	양적연구	사회적 원인

는데 스티플과 새로운 경험을 즐기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은 스포츠나 어려운 기술을 익히는 것으로 발휘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가정이나 학교, 상담기관에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개입방법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도덕성이나 욕구통제능력과 같은 개념들은 예방과 개입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다.

병리적인 도벽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충동성, 감각추구성향, 정신장애, 신경학적 손상 등이 연구되었다. 도벽은 선행연구에 의하면 다른 정신장애 증상들과 동시에 발병이 되는 공존장애의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도벽이 하나의 원인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병리적 관점에서 절도 청소년의 예방적 개입 및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상담기관 및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이 커야 한다. 또한 전문적 상담의 개입에 필요한 다각적 측면에서 개입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Grant(2006)는 도벽의 치료방법을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지만, 약물치료, 심리치료, 약물과 심리치료의 병행 모두 대규모 통제연구가 없어서 그 효과를 검증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행동 치료기법이 도벽의 유망한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한다.

약물치료는 초기에 도벽을 강박장애로 간주하여,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를 투여했는데 안전한 도벽 치료제인지 확인한 연구나 보고는 아직까지 없다. 이와 함께 Fluoxetine, fluvoxamine, paroxetine 등도 단일 치료제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역시 이러한 약물요법에 대해 일치된 치료효과를 보이지 못했다. 조증이나 우울증 등의 기분장애 증세와 함께 절도충동을 느끼는 절도 환자들은 기분장애나 항우울제를 복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족들 중에 물질사용장애가 있는 절도환자들은 날트렉손(naltrexone)을 복용 시 절도증상이 완화될 수 있다(Grant, 2002a). 따라서 약물 치료 시 절도 청소년의 유형을 파악하고, 다른 공존장애여부도 확인해야 하며, 증상이 심할 경우 병원에 연계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심리치료에서는 내현적 민감화(예: 환자에게 절도하는 장면을 연상하도록 하고, 붙잡힌 기억이나 진저리나는 느낌, 또는 숨 가뻐던 상황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떠올리게 한다), 혐오치료(절도 충동이 생기거나 절도가 생각날 때 마다 약간 고통스러울 때 까지 호흡을 중단한다), 체계적 둔감화(점진적 근육이완을 통해 환자의 긴장을 푸는 것을 돕고, 환자에게 절도와 유사한 상황을 상상하도록 요구하면서 불안감을 통제하면 절도 충동을 더욱 자제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가 있다.

도벽에 대한 인지행동치료에서는 부적절한 정서적·행동적 결과를 탐색하고 상담의 목표를 설정하여 그 결과와 관계된 선행사건이 무엇인지 탐색한다. 정서적·행동적 결과와 사고 간의 관계를 교육하며 그 결과를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인 생각을 탐색한다. 상담의 과정적 목표를 설정한 후 탐색된 생각의 체계를 논박을 통해 바꾸어준다. 그리고 생각이 바뀔 때 따라 나타나는 정서적·행동적 효과를 알게 한다. 마지막으로 내담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상담의 목표를 달성한다.

도벽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내담자는 대상 관계적 접근 상담으로도 개입할 수 있다. 먼저, 도벽에 대한 대상 관계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도벽 자체에 상담의 초점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상담에서 중요한 과제는 도벽을 통해 내담자가 만족감을 얻는 욕구를 파악하는 일이다. 도벽과 관련된 내담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내담자의 중요 타자와의 대인관계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내담자의 대인관계의 형태를 평가해야 한다. 대상관계 상담의 목표는 내담자가 정신적 표상을 통합시키도록 돕는 일이다. 이를 위해 부모의 반응이 수용, 관용, 관심, 일정한 경계 유지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조절하고 상담자 또한 이 원리를 실천해야 한다(한국청소년 상담원, 2002).

둘째, 또래의 압력과 또래 동조성 등이 청소년 절도행동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Wright, Nichols, Graber, Brooks, Gunn 그리고 Botvin(2004)은 친구의 권유나 압력에 대처하는 능력과 절도행동과의 연관성

을 연구했는데 지속되는 또래 집단의 압력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적합한 반응이나 확산적인 반응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반응 특성이 절도행동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었다.

연구는 흡연과 절도를 권유하는 훈련된 공모자(행동은 표준화되었음)와의 상황극을 녹화하여 청소년의 반응과 대담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절도권유상황의 시나리오는 “너는 친구와 함께 가게에 와서 물건들, 특히 선글라스를 둘러보고 있다. 옆에서 네가 뭘 하는지 뭘 말하는지 듣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 거고, 나는 네 친구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지시를 내린다. 공모자가 “이거 좋은데, 네 가방에 넣어.” 고 시작하여 학생의 답에 관계없이 “빨리, 다른 사람도 다 해.”, “아무 일도 없을 걸. 난 항상 하는데” 며 부추긴다.

연구 결과, 절도행위에 가담시키고자 하는 가상의 또래 압력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반응을 제시하고, 듣는 사람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신의 말을 각색, 수정하는 능력이 확산적 사고를 많이 한다는 것은 절도행위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고 절도행위를 저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렇게 청소년의 문제 대처 능력, 확산적 사고와 같은 개념들은 청소년의 절도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부모의 양육방식과 정신건강이 청소년의 절도행동에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우울한 어머니는 강압적 양육방식과 일관성 없는 훈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녀의 품행 문제나 절도행동을 일으킨다(Downey & Coyne, 1990; Susman, Trickett, Ianotti, Hollenbeck, & Zahn-Waxler, 1985). 또한 부모의 잘못된 양육방식과 소홀한 감독 또한 절도의 위험 요인 중에 하나이다(Lovejoy, Graczyk, O'Hare & Neuman, 2000). 반면, 부모의 적절한 관여는 자녀의 절도 행동을 중재할 수 있다.

자녀의 문제행동의 교정을 위한 부모의 정신건강, 양육방식, 관여 등에 대한 개입으로 미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에는 Triple-P(Positive

Parenting Program)가 있다. Sanders와 Markie-Dadds (1996)가 개발한 Triple-P는 자녀의 행동, 정서, 발달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다단계 전략 프로그램으로서 부모 및 가족에 개입하는 절도예방프로그램으로 활용되어졌다. Sander와 Markie-Dadds(1996)은 부모의 양육기술을 향상시키면 행동문제가 있는 아이가 보다 심한 반사회적 행동으로 가는데 벗어나도록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Triple-P는 바람직한 의사소통과 긍정적 관심을 통한 아이들의 발달 증진에 초점을 맞춘다. 부모들에게 자녀와 질 높은 시간을 보내고, 칭찬, 신체 접촉 같은 긍정적 관심과 애정을 주는 법을 교육함으로써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되고, 부모들은 자녀의 정직함과 바람직한 행동을 칭찬하게 된다(Sanders & Markie-Dadds, 1996). Triple-P의 구체적인 목표는 세 가지이다. 먼저, 사춘기 이전 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지식, 기술, 자신감, 자립, 슬기를 증진하고, 다음으로, 아동에게 양육적이고 안전하고, 호의적이고 갈등이 적은 환경을 조성하며, 마지막으로, 긍정적 양육 방식을 통해 아동의 사회적, 정서적, 언어, 지적, 행동 능력을 증진하는 것이다(Sanders, 1999). 청소년 절도의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김해운(2010)은 가족관계 결손으로 인한 심리적 상처에 대한 치유와 최소화를 개입방안으로 제시한다. 대부분의 절도청소년들은 가족관계가 평탄치 않고 편부모, 이혼, 친모의 가출, 부의 폭력 등 가족 간의 관계 결손이 있을 경우 청소년의 절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때, 가족관계와 가정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볼 수 있다. 가정 내에서 따스하게 수용되는 경험을 가지지 못한 청소년들은 다른 곳에서 애정을 채우려고 한다. 부모는 아이를 수용해 주는 경험을 꾸준히 제공하는 것이 절도행동을 교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넷째, 청소년이 갖는 학교에 대한 태도는 청소년의 절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다(Frank & Gloria, 1999), 지속적인 절도행동을 하는 청소년은 학업성과 과제 수행력이 떨어지며(Loeber, 1990), 이러한 원인으로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

을 확률이 높으므로 결국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로 인한 학교부적응의 청소년들은 자신들만의 하위문화를 형성하게 되고 그 하위문화가 비행으로 이어져 더욱 심화되게 된다. 이로 인해 절도, 사기 등 범죄와 비행을 부추기

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절도청소년들의 사회적 인지 능력에 결손을 생기게 하여 결국, 절도를 지속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절도 청소년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을 위해, 사회적 대안 접근의 인식을 증진

표 4. 개입방안에 대한 문헌

연구자 (연구년도)	국내/ 외	학위논문/학술지/저서	주제	대상	연구방법	관련요소
오남주 (2008)	국 내	범죄예방 정책연구	절도비행 예방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비행청소년	양적연구	개입방안
이동원 (2003)	국 내	형사정책연구	소년범죄자의 재범특성에 관한 고찰	소년범죄자	문헌연구	개입방안
이수정 (2005)	국 내	형사정책연구	절도행위 증독에 대한 진단도구 개발 연구	소년범죄자	양적연구	개입방안
한국청소년 상담원 (2002)	국 내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 도벽	청소년	문헌연구	개입방안
Dobson 등 (1990)	국 외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우울증 청소년, 품행장애 청소년 그리고 정상 청소년의 사회문제해결	청소년	양적연구	개입방안
Grant 등 (2002a)	국 외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naltrexone을 통한 청소년 도벽 치료	13세 여성	사례연구	개입방안
Grant 등 (2006)	국 외	Isr J Psychiatry Relat Sci	병적도벽의 이해와 새로운 치료모델		문헌연구	개입방안
Greening (1997)	국 외	psychopathology and social sciences: adolescence	절도 청소년과 절도를 저지르지 않은 청소년의 사회문제해결 기술	절도청소년, 일반청소년	양적연구	개입방안
Helen 등 (2003)	국 외	Child & Family Behavior Therapy	아동의 훔치기, 거짓말에 대한 개입 효과	아동, 부모	양적연구, 질적연구	개입방안
McPhail (2008)	국 외	University of Canterbury	아동의 훔치기 행동에 대한 조기개입	아동, 부모	양적연구	개입방안
Temblay 등 (1997)	국 외	Child & Family Behavior Therapy	아동의 절도행동에 대한 치료 개입	아동	질적연구	개입방안
Wright 등 (2004)	국 외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비행과 또래압력에 대응하는 확산적 사고력의 관계	청소년	양적연구, 질적연구	개입방안



시키고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 이때 학교 장면에서 접근 가능한 개입 전략이 사회문제해결 기술의 증진이 있다(Dobson, Fine, Haley, Joffe and Marriage, 1990).

사회 문제해결 기술은 가상적 사회문제들을 제공하고, 단계적인 계획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둔다. 즉,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 생각나는 모든 다양한 방법들”이라는 주제를 통해,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대안적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이 과정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절도 청소년의 대안적 사고를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Greening, 1997). 따라서 학교 장면에서는 청소년이 절도의 유혹을 일으키는 사회적 상황에서 대처 할 수 있는 대안적 사고를 증진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

절도행동의 원인에 대한 절도행동의 원인들을 살펴 본 결과 청소년 절도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개인에 대한 개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청소년 절도행동에 개입에 있어서 부모를 비롯한 학교의 교사, 친구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입 및 예방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며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등의 기관을 비롯하여 청소년상담기관에서의 전문적 개입 및 예방교육 등이 필요하다.

## 논 의

지금까지 절도와 관련된 국내·외 문헌 고찰을 토대로 절도와 관련된 용어의 유형 및 절도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을 검토하고, 병리적·심리적·사회적 관점에서 절도행동의 원인을 살펴보았으며 이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개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청소년의 절도는 매해 증가하고 집단화, 저연령화 및 폭력과 결합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 사법기관이나 청소년상담기관들은 폭력범이나 다른 비행문제와 차이 없이 절도 청소년들에게 개입하고 있는 현실이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전문적 개입이 사회적으로 요

구되는 만큼 청소년 상담기관에서는 범죄 유형에 따른 개입이 필요하며, 특히 절도 청소년에 대한 특성과 병리적, 심리적, 사회적 원인을 잘 파악하여 전문적 개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재범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절도 행동의 원인은 심리적, 병리적, 사회적 관점으로 설명되어진다. 심리적 관점에서는 청소년의 낮은 자존감, 남성성, 도덕성, 감각추구성향, 욕구통제력 부족과 같은 심리적 원인들이 청소년의 절도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도 모험심, 우울 등의 요인도 관련이 있었다. 병리적인 도벽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충동성, 감각추구성향, 정신장애, 신경학적 손상 등이 관련되었다. 병리적 관점에서 도벽은 도벽 이외의 다른 정신장애 증상들과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 결과로 보았다. 사회적 관점에서 청소년 절도는 가정과 또래를 비롯하여 학교에 대한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결손 가정의 구조적 문제는 절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구조적 문제가 있는 가정의 부모는 자녀의 절도에 대한 관여, 감독, 행동 관리 등에 소홀해지기 때문이다. 또래요인은 청소년이 개인적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비행 친구의 개입은 절도와 큰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숙영, 이재규, 박승민(1996)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청소년들을 만나 자신들만의 하위문화를 형성하게 되고 그 하위문화가 비행으로 이어져 비행이 더욱 심화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과정에서의 비행행동은 집단 의식을 가지게 되어 소속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런 문화를 접하게 됨에 따라 절도 경험이 있는 또래를 더 많이 사귀게 되고 이를 통해 사기, 절도를 습득하게 된다. 그러나 자신들만의 하위문화를 형성한 청소년들은 절도를 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는 과정을 통해 즐거움과 쾌감을 느끼게 된다. 이 즐거움과 쾌감은 절도행동이 습관화 되는데 영향을 미친다. 즉, 잦은 절도를 저지른 청소년은 보호관찰 등의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잡히더라도 나이가 어리니까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이

미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는 법의 엄격함을 경험하지 못한 채 반복되는 절도로 인해 죄책감의 결여를 가져 온다(김해운, 2010).

절도행동은 유아기나 아동기부터 시작되어 청소년기에 증가하며,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 그리고 좀더 성숙한 청소년과 어린 청소년의 절도행위 메커니즘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청소년은 모델링을 통해 절도를 학습하게 되고, 부모와의 애착관계 및 또래집단과의 접촉에 의해 절도는 더욱 강화된다. 절도행동의 강화는 결국, 사회적 영향력에 의해 실제 절도를 실행할 수 있게 되고, 자신에게 얼마만큼의 보상과 손실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손익계산을 하여 절도의 지속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청소년 절도행동의 이해와 개입 방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어서 청소년 상담기관에서 많은 도움을 주기 어려운 현실이다. 절도의 용어 또한 도벽, 상점절도, 재산비행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청소년 상담자들은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법률적 입장에서 절도와 구분하여 병리적 입장에서의 도벽(Kleptomania)에 대한 이해와 진단기준에 대한 이해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상담자들은 절도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관점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고, 절도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개입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무엇보다 절도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상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집단 상담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절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개인뿐만 아니라 부모, 교사, 지역사회 등을 포함한 포괄적 개입과 예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법기관을 비롯하여 상담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전문적 절도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와의 의사소통, 정서적 교류 등의 가족기능은 절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가 여자 청소년의 절도와 관련성이 높았다는 연구와 절도를 하는 남자청소년은 어머니와 관계를 소원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연구를

볼 때, 성별에 따른 가족관계에 대한 정서와 인지의 차이가 절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추후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청소년이 갖는 학업에 대한 태도나 또래와의 관계가 절도행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학교나 교사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선행연구에서 절도 청소년은 학업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갖고 있을 확률이 높고 학업수행력과 과제 수행력이 낮아 다시 학교 밖에서 절도를 저지르고 결국 학업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이는 절도 청소년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학교나 교사가 학업지도, 생활지도, 교사와의 관계 개선, 교우관계 개선 등을 통해 절도 청소년들의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 줄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내에서 청소년의 절도 행동이 드러나면 교사와 교우들 사이에 절도 청소년으로 낙인 찍혀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교사 또는 교우들이 절도 청소년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것은, 다음번에 또 절도를 저지르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김해운, 2010). 이는 학급차원의 예방교육 및 지도 등의 생활지도를 실시함으로써 교실 내에서 일어나는 도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담임교사는 동료 교사와 협조하여 절도 청소년에 대한 선입견을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고 교우들과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절도 청소년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범을 예방해야 한다. 학교에서 청소년의 절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다양한 개입을 위해서는 학교 내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상담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김성이, 강지원, 구분용, 황순길, 1996). 교육청 및 학교에 배치된 전문 상담교사, 학교사회복지사, 전문상담사 등의 상담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청소년 절도를 예방·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절도 청소년에 대한 이해 및 적극적 개입을 위해서는 청소년 상담기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상담자들에게는 병리적 도벽과 절도를 구분하여 개입할 수 있도록 적절한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절도

청소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상담을 통해 파악하여 자기 통제력을 높이고, 절도에 대한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와 인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절도를 통해 내담자가 만족감을 얻는 욕구를 파악하도록 돕고, 변화된 행동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교육 및 가족치료 활동을 통해 건강한 부모와 가정을 육성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교사와의 지지적 관계형성을 통해 학교 적응력을 강화하고 도울 수 있는 전력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사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와 국가 차원에서는 가정해체 등으로 가정이 제 역할을 못할 때 사회와 정부가 관여하여 기본적인 보호와 교육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재비행 방지를 위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소년원에 수감하기 보다는 지역사회 차원의 치료·보호시설에서 교정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이 바뀌고 있다. 미국에서 재비행 방지를 위한 교정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청소년 범죄자의 수가 감소하는 효과를 입증한 것과 같이 절도가 습관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사회적 제재를 가하고, 올바른 도덕의식을 갖도록 심리적이고 정신적 교육을 통한 포괄적이고 예방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초범의 경우 경찰에서 훈방하거나 법원에서 가벼운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담 명령이나 수강명령의 절도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먼저 경찰단계에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서는 상담 명령제 도입을 통해서 경찰과 면담 후 전문상담 기관에 의뢰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김성이 외, 1996). 다음 법원으로 넘어간 사건의 경우에도 대해서도 수강명령, 상담 명령을 통해 전문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사법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상담명령이나 수강명령 등의 절도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적 개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처벌을 통한 교정이 아닌 상담 및 교육을 통한 교정을 통해서 재범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경찰청 (2009). 범죄현황분석. 경찰백서.
- 고운미, 권일남, 김경준, 김진호, 김진화, 송병국, 양승춘, 이창식, 이채식, 임형백, 최창욱 (2002). 청소년문제행동론. 서울: 학지사.
- 권석만 (2010). 현대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경호 (2008). 남자 비행청소년의 절도와 남성성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0(3), 167-182.
- 김동연, 이영호, 임지향 (1994). KFD를 통한 비행청소년의 가족지각: 재산비행군과 강력비행군의 비교. 미술치료연구, 1(1), 63-84.
- 김선희 (2001). 자기통제력과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이, 강지원, 구본용, 황순길 (1996). 청소년 비행상담. 서울: 정민사.
- 김영한, 서정아 (2003).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종합대책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준호, 노성호, 이성식, 곽대경, 이동원, 박철현 (2006). 청소년비행론. 서울: 청목출판사
- 김지은 (1998). 청소년의 재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해운 (2010). 재산비행청소년의 심리적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비행원인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노정구, 김상조 (2002). 청소년의 상점절도와 그 영향요인에 관한 이론적 연구. 동명대학교 사이버비즈니스, 1, 95-106.
- 대검찰청 (2008). 범죄분석. 서울: 남일문화사.
- 대검찰청 (2009). 범죄분석. 서울: 남일문화사.
- 박성수 (1991). 가정교육과 청소년비행의 관계: 심층적 면접에 의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4(1), 55-72
- 박은주 (2004). 우울증과 도벽. 상담과 교회교육: 아동상담, 17, 64-67.
- 박헌중 (2009). 오토바이 집단 절도에 가담한 청소년의 심리적 변화.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법무연수원 (2009). 범죄백서. 경기: 경성문화사.
- 연합뉴스 (2010). 청소년강력범죄 증가 살인 21%.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0092902019922734034](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0092902019922734034) 에서 검색.
- 오남주 (2008). 비행청소년을 위한 절도비행 예방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범죄예방 정책연구*, 20, 381-414.
- 이동원 (2003). 소년범죄자의 재범특성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 15(20), 335-367.
- 이병학 (2009). 일본 소년범죄 대책에 대한 연구-일본 경찰청의 소년대화회를 중심으로. 부산: 부산지방경찰청.
- 이성식 (2000). 청소년범죄로서 재미와 스틸. *한국공안행정학회보*, 9, 53-80.
- 이수정 (2005). 절도행위 중독에 대한 진단도구 개발 연구. *형사정책연구*, 16(3), 267-293.
- 이수정, 조은경 (2005). 경찰단계에서의 소년범 위험성 평가를 위한 비행촉발요인 조사도구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27-42.
- 이숙영, 이재규, 박승민 (1996). 비행 청소년 상담과제. *청소년상담연구*, 4, 103-134.
- 임영기 (2001). 청소년의 도덕성발달과 비행충동성 간의 관계.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은희, 남현주 (2008). 부모와의 관계 및 청소년 스트레스 간의 상호작용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5(3), 23-48.
- 전병재 (1991). 청소년 친구집단과 비행간의 상관성 연구: 낙인과정 설명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선남 (1995). 도벽아동의 가족미술치료 사례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3(1), 119-135.
- 한국청소년상담원 (2002). 청소년 도벽의 이해와 대처.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홍은주 (2007). 도벽아동의 놀이치료 사례연구.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0(3), 99-112.
- Aizer, A., Lowengrub, K., & Dannon, P. N. (2004). Kleptomania after head trauma two case reports and combination treatment strategies. *Clin Neuropharmacol*, 27(5), 211-215.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SM-IV-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rnett(1996). Sensation seeking, aggressiveness, and adolescent reckless behavio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0(6), 693-702.
- Babin, B. J., & Griffin, M. (1995). A closer look at the influence of age on consumer ethics. In F. R. Kardes & Sujan (Ed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22, 668-673.
- Barry, J. B., & Laurie, A. B. (1996). Effects of moral cognitions and consumer emotions in shoplifting intentions. *Psychology & Marketing*, 13(8), 785-802.
- Baumer, T., & Rosenbaum, D. (1984). *Combatting Retail Theft: Programs and Strategies*. Stoneham, MA: Butterworth.
- Baylé, F. J., Caci, H., Millet, B., Richa, S., & Olié, J. (2003). Psychopathology and comorbidity of psychiatric disorders in patients with kleptomania. *Am J Psychiatry*, 160, 1509-1513.
- Carrasco, M., Barker, E. D., Temblay, R. E. & Vitaro, F. (1996). Eysenck's personality dimension as predictors of male adolescent trajectories of physical aggression, theft and vandal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1, 1309-1320.
- Coie, J. D., & Miller-Johnson, S. (2001). *Peer Factors and Intervention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Connell, R. W. (1995). *Masculinities*.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ox, D., Cox, A. D., & Moschis, G. P. (1990). When consumer behavior goes bad: An investigation

- of adolescent shoplifting.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7, 149-159.
- Dobson Keith S., Fine Stuart, Haley Glenn, Joffe Risha D., and Marriage Keith(1990). Social problem-Solving in depressed, conduct-disordered, and normal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8(5), 565-575.
- Downey, G., & Coyne, J. C. (1990). Children of depressed parents: An integrativ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08(1), 50-76.
- Elliot, D. S., Huizinga, D., & Ageton, S. (1985). *Explaining Delinquency and Drug Use*. Beverly Hills, CA: Sage.
- Elliot, D. S., & Menard, S. (1996) *Delinquent Friends and Delinquent Behavior: Temporal and Developmental Patter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arrington, D. P. (1996). *The Explanation and Prevention of Youthful Offend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arrington, D. P., & Loeber, R. (2000). Epidemiology of juvenile violence.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9(4), 733-748.
- Farrington, D. P., & West, D. J. (1990). *The Cambridge Study in Delinquent Development: A Long Term Follow-up of 411 London Males*. Berlin: Springer-Verlag.
- Frank J. M., & Gloria E. M. (1999). Nondelinquent youths' stealing behavior and their perceptions of parents, school, and peers, adolescence. v(135), 577-591.
- Gorman-Smith, D., & Tolan, P. (1998). The role of exposure to community violence and developmental problems among inner-city youth.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0, 101-116.
- Grant, J. E. (2004). Co-occurrence of personality disorders in persons with kleptomania: A preliminary investigation. *J Am Acad Psychiatry Law*, 32, 395-398.
- Grant, J. E. (2003). Family history and psychiatric comorbidity in persons with kleptomania. *Comprehensive Psychiatry*, 44(6), 437-441.
- Grant, J. E. (2006). Understanding and treating kleptomania: New models and new treatments. *Isr J Psychiatry Relat Sci*, 43(2), 81-87.
- Grant, J. E., & Kim, S. W. (2002a). Adolescent kleptomania treated with naltrexone.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11(2), 92-95.
- Grant, J. E., & Kim, S. W. (2002b).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associated psychopathology of 22 patients with kleptomania. *Comprehensive Psychiatry*, 43(5), 378-384.
- Greening, L. (1997). Adolescent stealers' and nonstealers'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Social Sciences: Adolescence*, 32(125), 51-55.
- Hamid, R. A. (2007). Effect of self-esteem on substance-abuse, theft and prostitution. *Journal of Chinese Clinical Medicine*, 2(1), 18-23.
- Johnson, J. G., Smailes, E., Cohen, P., Kasen, S. & Brook, J. S. (2004), Antisocial parental behaviour, problematic parenting and aggressive offspring behaviour during adulthood, a 25 year longitudinal investigation.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4, 915-930.
- Judy, B., & Eileen, S. N. (2000).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peers, morality and theft in an adolescent sample. *The high School journal*, 83(3), 31-42.
- Keltikangas-Jarvinen, L., & Lindeman, M. (1997). Evaluations of theft, lying, and fighting in

-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6, 467-483.
- Klemke, L. W. (1982). Exploring juvenile shoplifting.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67, 59-75.
- Krohn, M. D., Massey, J. L., & Skinner, W. F. (1987). *A Sociological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Social Learning Theory*. New York: Plenum Press.
- Krohn, M. D., Thornberry, T. P., Rivera, C., & LeBlanc, M. (2001). Later Delinquency Careers. In R. Loeber & D. P. Farrington (Eds.), *Child Delinquents Development, Intervention and Service Needs* (pp.191-211).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 Loeber, R. (1991). Antisocial behaviour: More enduring than changeabl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0, 393-397.
- Loeber, R. (1990). Development and risk factors of juvenile antisocial behavior and delinquency. *Clinical Psychology Review*, 10, 1-42.
- Loeber, R. (1996). *Developmental continuity, change, and pathways in male juvenile problem behaviors and delinquency*.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oeber, R., Keenan, K., & Zhang, Q. (1997). Boys experimentation and persistence in developmental pathways toward serious delinquency.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6(3), 321-357.
- Lovejoy, M. C., Graczyk, P. A., O' hare, E., & Neuman, G. (2000). Maternal depression and parenting behavior: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0, 561-592.
- McCord, J. (1982). A Longitudinal 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aternal absence and crime. In J. Gunn & D. P. Farrington (Eds.), *Abnormal Offenders, Delinquency,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Chichester: Wiley.
- McCord, J. (2001). Forging criminals in the family. *Handbook of youth and justice. The plenum series in crime and justice*. Netherlands: Kluwer Academic Publishers.
- McPhail, L. M. (2008). *Early Intervention for Stealing: Interrupting the Antisocial Trajectory*. Christchurch, New Zealand: University of Canterbury.
- Messerschmidt, J. W. (1993). *Masculinities and crime*. Lanham, MD: Rowman and Littlefield.
- Messerschmidt, J. W. (2000). *Nine lives: Adolescent Masculinities, the Body, and Violence*.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 Michelson, L. (1987). *Cognitive-behavioral Strategies in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Antisocial Disorder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Miller, G. E., & Klungness, L. (1989). Childhood theft: A comprehensive review of assessment and treatment. *School Psychology Review*, 18(1), 82-97.
- Miller, G. E., & Moncher, F. J. (1988). Critical issues in the assessment of childhood stealing behavior. *Advances in Behavioral Assess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4, 73-96.
- Miller, G. E., & Zimprich, E. (2006). v. Bethesda, Md: 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 Psychologists.
- Moffitt, T. E. (1993). "Adolescence-limited" and "Life-course-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100, 674-701.
- Moore, K. J., & Patterson, G. R. (2003). *Parent Training*. New York: Wiley & Sons Inc.
- Patterson, G. (1982a). *Coercive Family Process*. Eugene. OR: Castalia.

- Patterson, G. (1986). Performance Models for Antisocial Boys. *American Psychologist*, 41, 432-444.
- Patterson, G., DeBaryshe, B. D., & Ramsey, E. (1989).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ur. *American Psychologist*, 44, 329-335.
- Patterson, G. R., Reid, J. B., & Dishion, T. J. (1992). *Antisocial Boys: A Social Interactional Approach*. Eugene, OR: Castalia.
- Regnerus, M. D. (2002). Friends' influence on adolescent theft and minor delinquency: A developmental test of peer-reported effects. *Social Science Research*, 31(4), 381-705.
- Reid, J. B., & Hendriks, A. F. (1973). Preliminary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direct home intervention for the treatment of predelinquent boys who steal. In L. A. Hammerlynck, L. C. Handy, & E. I. Mash (Eds.), *Behaviour Change Methodology Concepts and Practice*. Champaign, Illinois: Research Press.
- Reid, J. B., & Patterson, G. R. (1976). Follow-up analyses of a behavioral treatment program for boys with conduct problems: A reply to K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4, 297-302.
- Reid, J. B., Patterson, G. R., & Snyder. (2002). *Antisocial Behavior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Developmental Analysis and Model for Interven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anders, M. R. (1999). Triple P-Positive Parenting Program: Towards an empirically validated multilevel parenting and family support strategy for the prevention of behavioural and emotional problems in children.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2, 71-90.
- Sanders, M. R., & Markie-Dadds, C. (1992). Toward a technology of prevention of disruptive behaviour disorders: The role of behavioural family intervention. *Behaviour Change*, 9(3), 186-200.
- Sanders, M. R., & Markie-Dadds, C. (1996). *Triple P: A Multilevel Family Intervention Program for Children with Disruptive Behaviour Disorders*. Melbourne: Australian Psychological Society.
- Schulman, T. D. (2004). *Something for Nothing: Shoplifting Addiction and Recovery*. Haverford, PA: Infinity Publishing.
- Silvio, P., Donatella M., Liliana D., Chiara P., Stefano P., & Giovanni B. C. (2002). Kleptomania: Clinical features and comorbidity in an Italian sample. *Comprehensive Psychiatry*, 43(1), 7-12.
- Susman, E. J., Trickett, P. K., Ianotti, R. J., Hollenbeck, B. E., & Zahn-Waxler, C. (1985). Childrearing patterns in depressed, abusive, and normal mother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5, 237-251.
- U. S. Department of Justice. (2001). *Crime in the United States 2000*. Washington, DC: U. S.
- Warr, M. (1993). Parents, peers and delinquency. *Social Forces*, 72, 247-264.
- White, S. R. (2006). Treating conduct disorder in children: An intervention for parents with an emphasis on attachment theory.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Section B: The Sciences and Engineering*, 67(4-b), 2212.
- Wright, A. J., Nichols, T. R., Graber, J. A., Brooks-Gunn, J., & Botvin, G. J. (2004). It's not what you say, it's how many different ways you can say it: Links Between divergent peer resistance skills and delinquency a year later.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5, 380-391.
- Yüksel, E. G., Taskin, O., Ovali, G. Y., Karacam, M.,

& Danaci, A. E. (2007). Case report: kleptomania and other psychiatric symptoms after carbon monoxide intoxication. *Turkish Journal of Psychiatry, 18*(1), 1-6.

Zhang, Q., Loeber, R., & Stouthamer-Loeber, M. (1997). Developmental trends of delinquency attitudes and delinquency: Replication and

synthesis across time and samples.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3*, 181-216.

원 고 접 수 일 : 2010. 08. 30.

수정원고접수일 : 2010. 11. 30.

게 재 결 정 일 : 2011. 01. 05.



## Understanding adolescents' theft behaviors: A review of the literature

Lee, Dong Hun   Kim, Se Jin   Cho, Mi Young   Lee, Jin Hyun   Bang, So Hee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ft crime has been recorded as the highest rate in Korea as well as it displays highest recidivism rates, among adolescents' crim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a comprehensive review of literature for understanding adolescents' theft behaviors. This study reviewed 63 academic articles, theses, and books for the understanding of conceptualiza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heft behavior among adolescents. The authors implemented an exhaustive search for literature published in 1961 through 2010 on theft behaviors.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the authors provide the expansion of understanding of theft behaviors, intriguing factors of theft behaviors, and intervening methods for theft adolescents. There are psychological, pathological, and societal factors explaining adolescent's theft behaviors. The psychological factors included such as low self-esteem, masculinity, morality, sense-seeking inclination, depression, etc. The pathological factors were related to impulsivity, mental disorders, neurological problems in the brain. Additionally, the societal factors included parenting styles, mother's dep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issue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theft behaviors, adolescents, literature review*